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배경, 전망과 과제

김도희·형혁규·김예경·박명희·심성은

- 01 I.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02 II. 하마스 도발 원인과 배경
- 06 III. 국제사회의 대응과 주요국 입장
- 13 IV. 향후 전망
- 16 V. 우리의 대응과 과제

□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Hamas)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Israel-Hamas war)이 한 달가량 지속되고 있음

- 이번 하마스의 기습 도발 원인 및 배경으로 팔레스타인 내부 정파 간의 주도권 다툼,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강경 정책,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란 간 갈등과 외교적 고립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불만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오랜 대치 상황과 중동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결정으로서 이번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 전쟁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자 전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입장 차로 인해 실질적 성과는 도출되지 못함

- 국제사회는 이제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강경한 대응과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 크게 우려하면서 양측에 휴전을 촉구하고 있음
- 현재까지 아랍 주변국으로의 확산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많지 않으나, 예단할 수는 없음. 다만, 11월 현재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양측에 휴전을 촉구하는 한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음

□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이번 하마스 기습 도발과 관련하여 정보 실패,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비대칭전력으로 무력화된 첨단 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한 대비와 예비군 동원 등 중요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통제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I.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Hamas)¹⁾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Israel-Hamas war)이 한 달가량 지속되고 있다. 하마스 무장세력은 대대적인 로켓포 공격은 물론이고 모터보트와 패러글라이더까지 동원, 이스라엘 남부에 기습 침투하여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였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습으로 반격을 시작하였고, 2023년 10월 20일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1단계 공습(airstrikes) - 2단계 지상전(ground maneuver) - 3단계 새 안보레짐 구축(the creation of a new security regime)’으로 이루어진 3단계 전쟁계획을 밝혔다.²⁾ 11월 6일 현재, 이스라엘은 1단계 공습 이후 가자지구를 포위하고 지상군 투입을 확대하고 있는바, 미국을 비롯한 주변 주요국들은 지상군 투입이 가져올 확전의 위험과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약 239명의 인질 석방 문제를 들어 이스라엘에 지상군 투입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³⁾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록 지상전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10월 28일 네타냐후 총리의 2단계 돌입 선언 이후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⁴⁾ 11월 6일 현재,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총 9천 7백 명 이상이고, 부상자는 2만 4천여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측도 1천 400여 명 사망에 5,4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⁵⁾

국제사회는 민간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 전쟁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전 세계는 2022년 2월 22일 발발하여 약 1년 8개월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두 개의 전쟁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마스의 도발 원인 및 배경과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1987년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아메드 야신(Ahmed Yassin)의 주도로 결성된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the Islamic Resistance Movement)’을 뜻하는 아랍어(حركة المقاومة الإسلامية) Harakat al-Muqawamah al-Islamiyyah)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2) Emanuel Fabian, “Gallant sets out 3 phases of war: says after Hamas vanquished, Israel will seek new ‘security regime’ in Gaza,” *The Times of Israel*, 2023.10.20.

3) Alex Marquardt, US seeks delay of Israeli ground incursion for more time for hostage talks, *CMW*, 2023.10.22.

4) Patrick Kingsley, Ronen Bergman and Hiba Yazbek, Israeli Forces Step Up Bombardment and Make Another Incursion Into Gaza, *The New York Times*, 2023.10.27.

5) Julia Frankel, These numbers show the staggering toll of the Israel-Hamas war, *AP*, 2023.11.6.

II. 하마스의 도발 원인과 배경

원래 이집트의 영토였던 가자지구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2005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간 평화협정 체결로 이스라엘이 철수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가 시작된 곳이다. 이후 2006년에 실시된 입법평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하마스(Hamas)가 팔레스타인 최대 정파인 파타(Fatah)와의 무력 충돌에서 승리하면서 2007년부터 실질적으로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되었다.

이번 하마스의 기습 도발 원인 및 배경으로 팔레스타인 내부 정파 간의 주도권 다툼,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강경 정책,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란 간 갈등과 외교적 고립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불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오랜 대치 상황과 중동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결정으로서 이번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년에 걸쳐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1.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요인

1964년에 설립된 PLO는 현재 전 세계 팔레스타인인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으로, 1993년 이스라엘과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을 체결하고 서안지구(West Bank)와 가자지구(Gaza)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파타와 하마스로 분열되었다.⁷⁾ 2006년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였으나, 파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쟁이 시작되었는데, 하마스가 무력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파타가 서안지구를, 그리고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상황에서 양측 간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마스는 미국과 EU로부터 테러 조직으로 규정받고 있는 등 파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발을 시도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추진하면서 평화협정 준수를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유화책을 요구하자, 하마스는 양국의 수교로 인해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파타가 “팔레스타인 통치의 대표성과 정당성, 나아가 경제적 이익까지 독점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크게 우려하게 되었다. 이 경우 “팔레스타인 독립 투쟁의 정당성이 자신에

6) Jim Zanotti, et. al., Israel and Hamas October 2023 Conflict: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R47754)*, 2023.10.13., p.9.

7) 하마스는 그 존재 이유를 저항으로 설정한 만큼 무장투쟁을 통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PLO는 협상을 통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게 있음”을 주장하는 하마스의 존재감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8) 9)}

한편, 하마스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연립정부의 극우 성향 강경 정책과 중동 데탕트 분위기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외교적 고립 심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팔레스타인 내부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었다. 실제로 2023년 9월 초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팔레스타인 주민의 34%가 하마스에, 36%는 파타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결국,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만행을 응징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도 이번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2. 네타냐후 정권의 강경 정책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한 후 극우파 '독실한 시오니즘당',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 등과의 연정을 통해 재집권하였다. 신정부 출범 이후 네타냐후 정권은 이전보다 더욱 강경해진 팔레스타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서안지구 내 9개의 이스라엘 정착촌 합법화를 승인했으며, 2005년 폐쇄된 서안지구 내 4개의 정착촌에 이스라엘인의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던 조항을 폐지하였다. 2023년 1월 3일 벤그비르(Itamar Ben-Gvir) 국가안보장관은 동예루살렘 성전산(Temple Mount)¹¹⁾을 방문하여 팔레스타인인을 자극하였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다수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안과 사법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크고 작은 무력 충돌로 84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양측 간 충돌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¹²⁾

따라서, 하마스가 기습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서안지구 도시들에 대한 공습, 알아크사 모스크 모독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등 이스라엘 극우 정권에 대한 축적된 분노와 불안이 근본적인 도발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¹³⁾

8) 장지향, 「'중동 데탕트 막아야 산다'... 하마스, 존립근거 확보하려 명운 건 도발[Deep Read]」, 『문화일보』, 2023.10.12.

9) 하마스는 1993년 이스라엘과 PLO가 체결한 오슬로 협정 이행과정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수 십차례의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이를 방해하고자 한 바 있다.

10) Lisa Beyer, "Your Guide to Understanding the Roots of the Israel-Hamas War," *Bloomberg*, 2023.10.14.

11) 성전산(Temple Mount)은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이자 기독교의 공통 성지이기도 하다. 동예루살렘 성지는 애초 요르단에 속해 있었으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합의에 따라 성지에서 기도와 예배는 이슬람교도만 할 수 있다. 유대교도도 방문은 가능하나 기도와 예배는 서쪽벽(통곡의 벽)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러한 규칙을 바꿔 유대인도 성지에서 기도와 예배를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해왔다. 성지관리권을 가진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은 벤그비르의 성지기습을 신성 훼손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해왔다.

12) 이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 이후 이스라엘의 정세 변화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3.3.30. 참조.

13) Tucker Reals and Charlie D'agata, Why did Hamas attack Israel, and why now?, *CBS NEWS*, 2023.10.25.

3. 중동 데탕트와 팔레스타인의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

그동안 미 행정부는 오슬로 협정의 핵심 내용으로 이스라엘과 PLO가 서로를 승인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기본원칙으로 중동분쟁을 중재해왔다. 그러나,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관점에서 중동평화정책을 추진하였다.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인정하는 ‘예루살렘선언’을 발표하고,¹⁴⁾ 12월 14일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다.¹⁵⁾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정책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데탕트를 조성하여 외부에서 팔레스타인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이른바 ‘아웃사이드 인(outside-in)’ 전략이었다.¹⁶⁾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성과가 바로 2020년 9월 15일 백악관에서 수니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소위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형제국이자 중동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 협상도 추진하였고, 이는 바이든 (Joe Biden) 행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¹⁸⁾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과 뒤이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수교 협상 추진은 팔레스타인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하마스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팔레스타인 ‘압박정책’의 심화라고 판단,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우디-이스라엘의 수교협상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장래 추진될 수 있는 관계 정상화 협상을 방해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친이스라엘정책에 파열음을 내기 위해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는 유례없는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¹⁹⁾

14) The New York Times, Full Video and Transcript: Trump’s Speech Recognizing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The New York Times*, 2017.12.6.

15)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는 선언. 미국은 1995년 「예루살렘 대사관법(JERUSALEM EMBASSY ACT OF 1995)」을 제정 하였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이전을 보류하는 문서를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채택해왔다.

16) 인남식, 「아브라함 협정에 숨겨진 트럼프의 셈법」, 『시사인』 687호, 2020.11.8.

17) 이스라엘은 이어 아프리카 이슬람국과도 수교에 나섰는데, 2020년 10월 23일에는 수단과, 12월 10일에는 모로코와 미국의 중재로 관계정상화에 나섰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슬람국가와의 외교적 동향은 김강석, 「아브라함 협정의 배경 고찰: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中東研究』 제39권 3호, 2012을 참조.

18) 전쟁 발발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교 협상을 중지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2023.10.15.

19) Jim Zanotti, et. al., Israel and Hamas October 2023 Conflict: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R47754)*, 2023.10.13., p.9.

4.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란 간 갈등

기존에 알려진 하마스의 규모와 역량으로 봤을 때, 이번 기습 도발의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물론 이란은 이를 공식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란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하지만 이란이 하마스 외에도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이라크 시아파 민명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Ismael Haniyeh)는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연간 약 7천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²⁰⁾ 또한, 다수의 전·현직 정보분야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은 무기 개발을 위한 병참을 지원(logistical support for weapons development)했고, 유도시스템을 갖춘 로켓과 드론 생산을 지원했으며,²¹⁾ 하마스를 대상으로 가자지구 외부 캠프에서 전술훈련도 실시하였다. 또한,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하마스 대원들을 훈련시켰다고 밝혔다.²²⁾

그렇다면 이란은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일까? 원래 중동의 이슬람교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종교적 차이로 인해 역내 종파 갈등의 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중동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해온 관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각기 중동과 아랍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해왔는데, 이는 시리아와 예멘 내전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분쟁에서 서로 상대 진영을 지원하는 대리전(proxy war)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중동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서방이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체결 이후 이란의 부상을 경계해왔으며, 이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반이란 세력을 규합해왔다. 이에 더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었다. 그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9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정상과 함께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MEC)” 구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한 바 있다. IMEC는 인도-중동-유럽의 수송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인도에서 유럽까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선박과 철도 부설이 핵심이다.²³⁾

20) Joby Warrick, Ellen Nakashima, Shane Harris and Souad Mekhennet, Hamas received weapons and training from Iran, officials say, *The Washington Post*, 2023.10.9.

21) Adam Entous, Julian E. Barnes and Jonathan Swan, Early Intelligence Shows Hamas Attack Surprised Iranian Leaders, U.S. Says, *The New York Times*, 2023.10.11.

22) Farnaz Fassih and Ronen Bergman, Hamas Attack on Israel Brings New Scrutiny of Group's Ties to Iran, 2023.10.14.; Collin P. Clarke, Iran and the 'Axis of Resistance' Vastly Improved Hamas's Operational Capabilities,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3.10.27.

23)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Meeting for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2023.9.9.; The White House, FACT SHEET: World Leaders Launch a Landmark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이러한 IMEC 구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수교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반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수교가 성사되어 양국이 이미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은 다른 중동국가들과 함께 반이란 전선을 구축하는 상황을 큰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IMEC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이 있는 예멘, 시리아, 레바논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이란이 중동 내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이란의 불만과 불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하마스를 지원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따라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지한 점은 일단 이란의 전략적 성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²⁵⁾

Ⅲ. 국제사회의 대응과 주요국 입장

1. 국제사회의 대응

전쟁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자 전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10월 21일 중동과 유럽 국가의 주요 정상과 외무장관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전쟁의 평화적 해법을 논의하였으나 공동선언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였고, 아랍 정상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서방 국가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더하여,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불참하였고, 그 최대 우방인 미국의 경우 미국을 대표하여 발언할 고위급 인사가 불참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²⁶⁾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재를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23년 11월 6일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하였으나, 하마스를 직접적으로 거명 또는 비난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채택이 무산되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10월 18일 브라질이 제출한 결의안에,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10월 25일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²⁷⁾

Corridor, 2023.9. 9.

24) Fuad Shahbazov, Reimagining Geopolitics: How the IMEC Corridor Aims to Reshape Global Trade Dynamic, Gulf International Forum, 2023.10.19.

25) CSIS, Press Briefing: Latest Insights on Israel-Hamas War, 2023.10.13., p.9.

26) Laure Stephan, Israel-Hamas war: Cairo summit calls for humanitarian aid amid acute divisions between Europeans and Arabs, *Le Monde*, 2023.10.23.; Vivian Yee and Matina Stevis-Gridneff. Peace Summit in Egypt Shows a Shift in Rhetoric but no Consensus, *The New York times*, 2023.10.21.; Aidan Lewis and Nafisa Elthahir, Cairo Peace Summit ends without Gaza breakthrough, *Reuters*, 2023.10.22.

27) Edith M. Lederer, UN Security Council fails again to address Israel-Hamas war, rejecting US and Russian resolutions, *AP*, 2023.10.26.

| 표 1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초안) 현황

결의안	일자	주요 내용	투표 결과	반대 논리
러시아 제출 결의안	2023. 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휴전 10월 7일 이후 억류된 사람들 석방 인도적 지원 또는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 5 (중국, 러시아, UAE 등) 반대: 4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기권: 6 (브라질, 에콰도르, 스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의안이 하마스를 거명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브라질 제출 결의안	2023.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원조 허용을 위한 인도주의적 일시 중지 모든 민간인에 대한 폭력 규탄 이스라엘의 대피령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 12 반대: 1 (미국-거부권) 기권: 2 (러시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의안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언급되지 않음
러시아 제출 결의안	2023.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북부에 대한 대피 명령 취소 요구 이스라엘의 본질적 자기 방어권은 언급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 4 (중국, 가봉, 러시아, UAE) 반대: 2 (미국, 영국) 기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의안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언급되지 않음
미국 제출 결의안	2023.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를 허용하는 인도주의적 일시 정지 요구 모든 국가들의 자위권지지 국제법 준수 촉구 하마스가 모든 피랍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 10 반대: 3 (러시아, 중국 - 거부권, UAE) 기권: 2 (브라질,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자 사태의 근본 원인이나 이스라엘의 봉쇄·피난 명령을 다루지 않음

※ 자료: UN News(<https://news.un.org/en/>) 참조·정리

한편, 2023년 10월 27일 유엔총회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민간인 보호 및 법적 인도적 의무 지지(Protection of civilians and upholding legal and humanitarian obligations)” 결의안을 찬성 120표, 반대 14표, 기권 45표로 채택하였다.²⁸⁾ 요르단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하마스의 테러행위에 대한 규탄과 인질 석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반대와 기권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발표된 이스라엘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의 2단계 지상군 투입 작전 돌입 선언으로 이 결의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²⁹⁾

2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Calling for Immediate, Sustained Humanitarian Truce Leading to Cessation of Hostilities between Israel, Hamas, *TENTH EMERGENCY SPECIAL SESSION, 40TH & 41ST MEETINGS (AM & PM), GA/12548*, 2023.10.27.

29) Aljazeera, Netanyahu says war entering 'second stage' as Israeli troops push into Gaza, 2023.10.29.

2. 주요국 입장

가. 미국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쟁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미국은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이루어진 직후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 수단을 제공할 것과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³⁰⁾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10월 8일 미 해군 제럴드 포드(Gerald Ford, CVN 78) 등 항공모함강습단을 동지중해에 배치하였고, 10월 14일에는 드와이트 D.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또한 미 공군은 F-15,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편대도 해당 지역에 배치하고, 그 수를 두 배로 증파하고 있다. 또한, 군 수송기를 통해 미국의 군사 장비를 이스라엘에 지원하였다.³¹⁾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전쟁에 개입하려는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³²⁾

또한,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를 방문해 고위 관리들을 접촉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분쟁 확산 방지와 인질의 즉각적 석방, 그리고 민간인 보호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였다.³³⁾ 바이든 대통령도 10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확산으로 인한 더 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방문 직전 발생한 가자지구 내 병원 폭발사건으로 민간인 5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요르단에서 아랍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던 애초의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압델 타파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하고 이집트-가자 지구 국경을 개방하여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³⁴⁾ 11월 3일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방문하여 민간인 대피와 인질 구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전을 중지할 것

30) The White House, Statement from President Joe Biden Condemning Terrorist Attacks in Israel, 2023.10.7.;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Terrorist Attacks In Israel, 2023.10.7.

31) Peter Baker and Farnaz Fassihi, Fearing Escalation, Biden Seeks to Deter Iran and Hezbollah, *The New York Times*, 2023.10.15.

32)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2023.10.10.

33)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Blinken's Travel to Israel, Jordan, Qatar, Bahrain, Saudi Arabia,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Egypt, 2023.10.12.

34) Aamer Madhani and Colleen Long, President Biden wraps up his visit to wartime Israel with a warning against being 'consumed' by rage, *AP*, 2023.10.19.

을 촉구하고, 11월 4일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외무장관을 만나 휴전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³⁵⁾

이 외에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최근 동결 해제하였던 이란의 60억 달러 자금을 재동결하였다.³⁶⁾ 또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가자 지구, 수단, 튀르키예, 알제리, 카타르 등에서 활동하는 하마스의 주요 조직원, 공작원, 자금지원책 등 개인 9명과 1개의 기관을 제재하였고,³⁷⁾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UAV) 개발을 도운 11명의 개인, 8개 단체, 그리고 선박 1척을 제재하였다.³⁸⁾

나. 아랍국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요르단 등 대부분의 아랍 국가와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은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 민간인을 인질로 납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그보다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명시적 지지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 촉구에 더 중점을 두었다.³⁹⁾ 특히, 가자 지구 내 병원 폭발과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 개시 이후 팔레스타인 내 민간인 희생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면서 이스라엘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이들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집트와 요르단과 같은 가자지구 인접 국가들은 가자지구와 통하는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⁴⁰⁾ 다만,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한 구호물자 전달 및 부상자 이송을 위해 가자 지구와 인접한 라파(Rafah) 국경을 간헐적으로 개방하고 있다.⁴¹⁾

35)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대량 살상을 비난하면서 즉각 휴전(ceasefire)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휴전이 오히려 하마스에 재정비의 시간을 벌여 줄 뿐이라는 사유로 휴전을 거부하는 대신 인도주의적 임시 휴전(pause)을 제안하였고,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이 우선되지 않는 미국이 제안한 임시 휴전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영, 「중동 순방 블링컨, 이스라엘·아랍국가에 '일시적 휴전' 퇴짜 맞아」, 『한겨레』, 2023.11.5.

36) Michael Crowley and Alan Rappeport, U.S. and Qatar Deny Iran Access to \$6 Billion From Prisoner Deal, *The New York Times*, 2023.10.12.

3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ollowing Terrorist Attack on Israel, Treasury Sanctions Hamas Operatives and Financial Facilitators, 2023.10.18.

3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Sanctions Actors Supporting Iran's Missile and UAV Programs, 2023.10.18.

39) Jim Zanotti, et. al., Israel and Hamas October 2023 Conflict: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R47754)*, 2023.10.13., pp.34-35.

40) Jack Jeffery and Samy Magdy, Why Egypt and other Arab countries are unwilling to take in Palestinian refugees from Gaza, *AP*, 2023.10.19.

41) Najib Jobain, Joseph Krauss and Samy Magdy, Egypt's border crossing opens to let a trickle of desperately needed aid into besieged Gaza, *AP*, 2023.10.19.; Abbas Al Lawati and Mohammed Abdelbary, What is the Rafah crossing, Gazans' last hope to escape the war, and how does it work?, *CNM*, 2023.11.2.; Ted Regencia, Lyndal Rowlands, Mersiha Gadzo and Usaid Siddiqui, Israel-Hamas war live: Rafah opens from Gaza for limited evacuations, *AlJazeera*, 2023.11.1.

다. 이란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하마스에 열렬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이란의 개입은 부인하고 있다.⁴²⁾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대통령은 “이란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합법적인 방어”를 지지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린 것은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이므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개시하자 라이시 대통령은 “시오니스트(Zionist, 유대 민족주의) 정권의 범죄가 레드 라인을 넘었다”라며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확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이 이란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고 비난하였다.⁴³⁾

라. 유럽

유럽은 정부와 시민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0월 10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미국, 영국과 함께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⁴⁴⁾ 그러나 10월 14일, 유럽 각국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자들을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팔레스타인 지지 행진을 금지했다.⁴⁵⁾ 10월 12일, 프랑스 내무부 장관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공공질서를 교란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10월 18일 파리 고등법원이 향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사례별로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중동의 혼란이 유럽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EU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원 정책에 관해 혼선이 있었다. 10월 9일, 올리버 바헬리(Oliver Varhelyi) 유럽집행위원회 유럽근린확대집행위원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 “EU의 팔레스타인 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해 EU가 하마스를 비판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집행위의 예산 집행 중단에 대해 반대한 결과, EU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42) Leily Nikounazar, Iran's Supreme Leader Issues Tehran's Latest Denial of Involvement in Israel Attacks, *The New York Times*, 2023.10.10.

43) سيد ابراهيم ريسي@raisi_com, 2023.10.29.<https://twitter.com/raisi_com/status/1718461912168489156>.

44)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on Israel, 2023.10.9.

45) Euronews, “Street marchers back both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n European cities”, *Euronews*, 2023.10.14.

마. 일본

일본 정부는 10월 7일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반 시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을 강하게 비난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요구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외무대신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였다.⁴⁶⁾ 공격을 시작한 하마스를 비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반격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외교를 일본 언론은 ‘균형 외교’로 표현하고 있다.⁴⁷⁾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에너지 안보상 중요한 과제로 일본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양쪽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은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중동문제에서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대응에서도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정상에 하마스를 비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가자지구에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약 15억 엔의 긴급인도적 지원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기시다(岸田文雄)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UAE, 카타르 정상과 전화 통화를 통해 상황의 확대를 막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 중국

중국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분쟁을 고조시키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움직임을 반대하며, ‘두 국가 방안(两个方案, two state solution)’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⁴⁸⁾

또한 자이쥘(翟隽) 중동문제 특사를 내세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 등 각국 외교 당국자와 통화는 물론 대면을 통해 평화중재자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10월 19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집트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첫 입장을 제시한 바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⁹⁾

중국은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 시종일관 균형자적 입장을 강조해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친구로 양측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46) 外務省, 「イスラエル・パレスチナ武装勢力間の衝突について」, 2023.10.8.

47) “中東外交, バランスに重点.” 『日本経済新聞』, 2023.10.11.

4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就巴以冲突升级答记者问」, 2023年10月8日, 「全球安全倡议概念文件」, 『新华社』, 2023年2月21日.

49) 「习近平会见埃及总理」, 『环球网』, 2023年10月20日.

안전과 발전을 공유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왕이(王毅) 당중앙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사익이 없으며, 항상 평화의 편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편에 서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⁵⁰⁾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이후, 중국은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 지구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징벌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과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구호 접근 허용 촉구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강대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냉정함과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앞장서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¹⁾

이와 같은 중국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란·사우디 간 중재를 통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중립(pro-Palestinian neutrality)적 태도’를 보이면서, 평화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⁵²⁾

사. 러시아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대해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 이란 대통령, 이라크 총리,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 등과 회담이나 전화로 중동 상황에 대해 의논했으며, 이를 기회로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 혹은 “미국의 항모 전단 파견은 이해 불가” 등 미국에 대한 비판도 제기한 바 있다.⁵³⁾ 10월 18일에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중러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⁵⁴⁾

최근 러시아의 움직임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친러 국가들을 규합하고 미국을 견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축소되었던 러시아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5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年10月13日.

5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年10月19日.

52) Nectar Gan, “China wants to be a peace broker in the Middle. How has it responded to the Israel-Gaza war?”, *CNN*, 2023.10.11.; Lili Pike, “The Israel-Hamas War Is Testing China’s Diplomatic Strategy”, *Foreign Policy*, October 10, 2023.

53) 차주혁, 「푸틴, “팔 국가 건설 지지·미 항모전단 파견 이해안돼”」, 『MBC NEWS』, 2023.10.12.

54) AP, “China and Russia plan to work together for a two-state solution for Israel and the Palestinians”, *AP*, 2023.10.20.; 이유진, 「러시아 “중동 위기 해결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 강조」, 『뉴스1』, 2023.10.20.; 최현준, 「시진핑-푸틴, 미국에 맞서 ‘전략적 협력 확대’ 재 확인」, 『한겨레』, 2023.10.19.

IV. 향후 전망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의 2단계 지상 작전 돌입 이후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으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0월 27일 오후부터 이스라엘군은 본격적인 지상전 개시 여부를 선언하지 않았으나, 육해공군을 동원하여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휴전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도 대규모 지상전을 재고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은 곧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거부하였다.⁵⁵⁾

그렇다면, 이번 기습 도발로 하마스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협상이 중단되었고, 국제사회에서 하마스의 존재감이 부각되었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국들의 지지를 얻어냈으니 하마스의 목표는 일정부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마스의 기습 도발 초기에만 해도 그런 해석도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사실상 지상전을 개시한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해석이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국제사회는 이제 하마스보다는 하마스를 궤멸시키겠다고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강경한 대응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으로 인한 전쟁의 확산 가능성과 민간인 희생자들이 직면하게 될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조망해본다.

1. 전쟁의 확산 가능성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확산 가능성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과 이란/헤즈볼라의 개입이라는 2가지 요인이 충족될 때 높아질 수 있다.

우선, 애초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이 확산을 반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은 쉽지 않아 보였다. 지상군의 투입은 이란의 개입을 불러옴과 동시에 시리아 방공망을 통한 러시아의 개입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가자지구 분쟁 당시 지상군 투입으로 이스라엘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⁵⁶⁾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이의 복구에 대한 부담도 지상군 투입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미국이 인질 협상과 구호품 전달을 위한 시간 확보를 명분으로 이스라엘에 지상군 투입을 연기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다는 점도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제시되었다.⁵⁷⁾

55) Patrick Kingsley, Netanyahu Rejects Calls for a Cease-fire — and for His Resignation, *The New York Times*, 2023.10.30.

56) 2014.7.8.~8.26.까지 50일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2,251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은 군인 66명과 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 UNRWA, 2014 GAZA CONFLICT, <<https://www.unrwa.org/2014-gaza-conflict>>.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10월 28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고, 하마스를 궤멸하기 위한 “길고 어려운” 작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⁵⁸⁾ 하였기에 전면 침공을 통한 단기전보다는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작전 규모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지상전 개시 또는 전면 침공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하마스의 기반 시설과 지하터널을 파괴하였고, 통신망도 마비시키는 등 지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⁹⁾ 다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는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⁶⁰⁾와 이스라엘의 3단계 작전계획을 볼 때, 지상군을 투입하여 하마스를 파괴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더욱 직접적인 확전의 요인으로 이란이나 헤즈볼라의 참전이 거론되는데, 아직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였다는 증거는 없다.⁶¹⁾ 그동안 이란의 행태를 볼 때,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의 개입을 간접 지원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동시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분쟁에 확대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란이 그러한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이란의 직접적 개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²⁾ 또한 헤즈볼라는 이미 북부 이스라엘군 기지와 민간지역에 대해 몇 차례 공격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참전하지는 않고 있는데⁶³⁾ 이는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이 참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⁶⁴⁾

또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전쟁이 아닌 하마스라는 무장 정파와의 갈등이기 때문에 주변 아랍국들의 참전 명분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해서 하마스가 전쟁을 빨리 종결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함과 동시에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파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등 주변 아랍국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시리아는 내전을 겪은 직후여서 참전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⁶⁵⁾

57) Edward Wong, Eric Schmitt, Michael D. Shear and Ronen Bergman, U.S. Advises Israel to Delay Gaza Invasion, Officials Say, 2023.10.22.

58) Patrick Kingsley, Ronen Bergman and Thomas Fuller, Israel-Hamas War Enters 'Second Stage,' Netanyahu Says, 2023.10.28.

59) 정철환, 「전면 침공 대신 '하마스 포위戰'...빙커버스터로 땅굴부터 때렸다」, 『조선일보』, 2023.10.30.

60) Peter Baker, Biden Warns Israel Not to Occupy Gaza, *The New York Times*, 2023.10.15.

61) Jim Zanotti, et. al., Israel and Hamas October 2023 Conflict: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R47754)*, 2023.10.13., pp.25-26.

62) Farnaz Fassihi, After Years of Vowing to Destroy Israel, Iran Faces a Dilemma, *The New York Times*, 2023.11.1.

63) Daniel Byman, Hezbollah's Nasrallah Tries to Walk a Fine Line on Israel-Hamas War, 2023.11.3.

64) Maria Abi-Habib and Ben Hubbard, Hezbollah Hesitates as Israel Strikes Gaza, 2023. 10.31.; Mat Nashed and Justin Salhani, Lebanon fears regional war as Hezbollah-Israel fighting intensifies, 2023.10.30.

65) 남보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소 한 달 이상...5차 중동전쟁은 없을 것”」, 『한국일보』, 2023.10.10.; 이혜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길어질 것..유가 100달러 갈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이데일리』, 2023.10.16.

다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선언하였고,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에 대한 일련의 공격에 대해 미군이 시리아의 이란 연계 무장단체 관련 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반격하는 등 가자지구 이외의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다. 또한 전쟁에서는 언제나 오판할 가능성도 있기에 확전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인도주의적 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의 두 번째 관심은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인도주의적 위기 문제이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분쟁 중에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고통의 가해를 금지하고, 적의 군사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군사적 행동을 허용하며, 민간인에게 부상이나 사망을 입히거나 민간의 물체에 손상을 입히는 군사적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⁶⁶⁾ 국제사회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국제인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으며, 최근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지구 진입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대해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⁶⁷⁾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하였으나, 국경은 봉쇄되었고, 대피 중에도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등 사실상 가자 주민들은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⁶⁸⁾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유일한 지점인 이집트의 라파 국경만이 가자 주민들의 유일한 탈출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난민과 하마스의 유입을 이유로 개방을 거부해왔고,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유엔 간 협상 끝에 지난 10월 21일 처음으로 국경을 개방하였다. 그 이후 구호물자 수송, 부상자 수송 등의 특정 목적으로 간헐적으로만 국경을 개방하다가, 마침내 이집트는 카타르의 중재로 2023년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국경을 개방하였고, 그동안 가자 지구에 머무르던 외국 여권 소지자들과 심각한 부상자 등이 이집트로 이동하였다.⁶⁹⁾ 지난 10월 21일 처음 국경이 개방된 이후 31일 현재까지 241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왔으나 현지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호물의 부족으로 인해 유엔의 구호품 창고가 약탈당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루 80대의 트럭이 들어오는 것에 합의했으나, 유엔에 따르면 하루 100대 정도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한다.⁷⁰⁾

66) Jim Zanotti, et. al., Israel and Hamas October 2023 Conflict: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R47754)*, 2023.10.13., pp.30-31.

67) The White House, Readout of President Biden's Call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of Israel, 2023.10.29.

68) Isabel Debre, Deith M. Lederer and Wafaa Shurafa, Palestinians flee northern Gaza after Israel orders 1 million to evacuate as ground attack looms, 2023.10.14.

69) 류제웅, 「이틀째 라파 국경 개방... "향후 2주간 7,500명 탈출"」, *YTN*, 2023.11.2.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인질 석방이 먼저라며 휴전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최근 인질 석방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임시 휴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⁷¹⁾ 유엔총회 역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으나, 이스라엘은 휴전은 곧 항복이며 하마스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휴전을 거부하고 있다. 향후 유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이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V. 우리의 대응과 과제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충돌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 대한 의견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한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2023년 10월 11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한 테러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⁷²⁾ 또한 외교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민간인 사상자 급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사태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⁷³⁾ 또한 정부는 또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2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발표하고,⁷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외교장관과 통화 및 면담하고 이번 사태 해결과 관련하여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였다.⁷⁵⁾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확전이 우려되면서 미국의 동맹국 지원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⁷⁶⁾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70) Vivian Yee, The fate of many Gazans lies with the Rafah crossing, and Egypt, *The New York Times*, 2023.10.31.

71) Fritz Farrow, Biden calls for 'pause' in Israel-Gaza conflict to get hostages out, 2023. 11.2.

72)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3.10.11.

73) 외교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3.10.19.

74) 외교부,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2023.10.19.

75) 외교부, 「박진 장관, 이스라엘·UAE·요르단 외교장관과 중동정세 관련 연쇄 통화(10.29.)」(보도자료), 2023.10.30.; 외교부, 「박진 장관, 이집트 외교장관과 통화(10.30.)」(보도자료), 2023.10.3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가 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⁷⁷⁾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하마스의 기습 도발과 관련하여 특히 검토해봐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하마스의 비대칭 전력을 앞세운 기습 도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에 기인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이스라엘을 기만하기 위해 위장했다고 알려졌다.⁷⁸⁾ 또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경계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⁷⁹⁾ 이로 인해 기습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초기의 대응 실패로 인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도 대북 정보력을 강화하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24시간 중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정찰이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⁸⁰⁾

다음으로, 합동참모본부는 휴일 새벽 첫 20분간의 사격에 5,000발 이상의 로켓포를 발사하여 아이언 돔을 무력화하고, 드론 공격으로 분리 장벽의 감시 통신 체제를 파괴한 후 침투하는 하마스의 기습공격 양상이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며 앞으로 이를 대남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⁸¹⁾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유사한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은 정보실패,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비대칭전력으로 무력화된 첨단 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비하고, 이스라엘의 대규모 반격을 가능하게 한 예비군의 동원 등 중요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⁸²⁾

이 외에도, 이번 전쟁 과정에서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에 유입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 이어 북한이 세계 최대의 불법 무기 제공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⁸³⁾,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하마스의 기습공격 때 북한 무기가 사용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⁸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⁸⁵⁾

76) 최윤희, 「오피니언: 최윤희의 한반도 평화워치 - 4개 전쟁 발발 땐 미국은 한국 도와줄 여력 없어」, 『중앙일보』, 2023.11.3.

77) 김형구, 「미전문가, "북이 하마스 교훈 얻기 전에 9.19 중단 모색해야"」, 『중앙일보』, 2023.10.22.

78) 김상운, 「세계 최강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왜 무너졌는가[김상운의 뽀투더뷰체]」, 『동아일보』, 2023.10.30.

79) 이영수, 「북한이 하마스처럼 기습공격을 한다면?」, 쿠키뉴스, 2023.10.26.

80) 김성훈, 「북한, 하마스처럼 전쟁할 텐데...군 "9.19 합의로 대북감시 제약" 분통」, 『매일경제』, 2023.10.13.

81) 박찬, 「합참, "하마스, 북한의 무기 전술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KBS 뉴스』, 2023.10.17.

82)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 "적 과소 평가가 재앙 부르는 최고 레시피" 하마스 기습 성공의 3대 교훈」, 『조선일보』, 2023.10.19.

83) 이설, 「북한, 하마스와 무기 거래 의혹 반박... "모략 선전이며 낭설"」, 『뉴스』, 2023.10.13.

84) 이창규, 「주한 이스라엘 대사 "하마스, 기습공격 때 북한 무기 사용"」, 『뉴스1』, 2023.10.28.

85) 이윤희, 「주미대사 "북한 무기거래 등 안 보리 결의 위반 억제 강화"」, 『뉴스1』, 2023.11.2.

참고문헌

- * 김강석, 「아브라함 협정의 배경 고찰: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中東研究』 제39권 3호, 2012.
- * 김상운, 「세계 최강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왜 무너졌는가[김상운의 뽕투더퓨처]」, 『동아일보』, 2023.10.30.
- * 김성훈, 「북한, 하마스처럼 전쟁할 텐데…군 “9.19 함의로 대북감시 제약” 분통」, 『메일경제』, 2023.10.13.
- * 김형구, 「미전문가, “북이 하마스 교훈 얻기 전에 9.19 중단 모색해야」, 『중앙일보』, 2023.10.22.
- * 남보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소 한 달 이상…5차 중동전쟁은 없을 것”」, 『한국일보』, 2023.10.10.
-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3.10.11.
- * 류제웅, 「이틀째 라파 국경 개방…“향후 2주간 7,500명 탈출”」, YTN, 2023.11.2.
- * 박찬, 「합참, “하마스, 북한의 무기 전술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 『KBS 뉴스』, 2023.10.17.
- *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 “적 과소 평가가 재앙 부르는 최고 레시피” 하마스 기습 성공의 3대 교훈」, 『조선일보』, 2023.10.19.
- * 외교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3.10.19.
- * 외교부,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2023.10.19.
- * 외교부, 「박진 장관, 이스라엘· UAE· 요르단 외교장관과 중동정세 관련 연쇄 통화(10.29.)」(보도자료), 2023.10.30.
- * 외교부, 「박진 장관, 이집트 외교장관과 통화(10.30.)」(보도자료), 2023.10.31.
- * 外務省, 「イスラエル・パレスチナ武装勢力間の衝突について」, 2023.10.8.
- * 이본영, 「중동 순방 블링컨, 이스라엘·아랍국가에 ‘일시적 휴전’ 퇴짜 맞아」, 『한겨레』, 2023.11.5.
- * 이설, 「북한, 하마스와 무기 거래 의혹 반박…“모략 선전이며 낭설”」, 『뉴스』, 2023.10.13.
- * 이영수, 「북한이 하마스처럼 기습공격을 한다면?」, 쿠키뉴스, 2023.10.26.
- * 이유진, 「러시아 “중동 위기 해결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 강조」, 『뉴스1』, 2023 10.20.
- * 이윤희, 「주미대사 “북한 무기거래 등 안 보리 결의 위반 억제 강화”」, 『뉴시스』, 2023.11.2.
- * 이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 이후 이스라엘의 정세 변화와 시사점」,

-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3.3.30.
- * 이창규, 「주한 이스라엘 대사 “하마스, 기습공격 때 북한 무기 사용”」. 『뉴스1』, 2023.10.28.
 - * 이해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길어질 것..유가 100달러 갈 수도”[신윤의 이슈 메이커]」, 『이데일리』, 2023.10.16.
 - * “中東外交、バランスに重点,” 『日本経済新聞』, 2023.10.11.
 - * 인남식, 「아브라함 협정에 숨겨진 트럼프의 셈법」, 『시사인』 687호, 2020.11.8.
 - * 장지향, 「‘중동 데탕트 막아야 산다’… 하마스, 존립근거 확보하려 명운 건 도발 [Deep Read]」, 『문화일보』, 2023.10.12.
 - * 정철환, 「전면 침공 대신 ‘하마스 포위戰’... 벙커버스터로 땅굴부터 때렸다」, 『조선일보』, 2023.10.30.
 -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就巴以冲突升级答记者问」, 2023年10月8日, 「全球安全倡议概念文件」, 『新华社』, 2023年2月21日.
 -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年10月13日.
 -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年10月19日.
 - * 차주혁, 「푸틴, “팔 국가 건설 지지·미 항모전단 파견 이해안돼”」, 『MBC NEWS』, 2023.10.12.
 - * 최윤희, 「오피니언: 최윤희의 한반도 평화위치 - 4개 전쟁 발발 땐 미국은 한국 도와줄 여력 없어」, 『중앙일보』, 2023.11.3.
 - * 최현준, 「시진핑-푸틴, 미국에 맞서 ‘전략적 협력 확대’ 재확인」, 『한겨레』, 2023.10.19.
 - * 「习近平会见埃及总理」, 『环球网』, 2023年10月20日.
 - * Amer Madhani and Colleen Long, President Biden wraps up his visit to wartime Israel with a warning against being ‘consumed’ by rage, *AP*, 2023.10.19.
 - * Abbas Al Lawati and Mohammed Abdelbary, What is the Rafah crossing, Gazans’ last hope to escape the war, and how does it work?, *CNN*, 2023.11.2.
 - * Adam Entous, Julian E. Barnes and Jonathan Swan, Early Intelligence Shows Hamas Attack Surprised Iranian Leaders, U.S. Says, *The New York Times*, 2023.10.11.
 - * Aidan Lewis and Nafisa Eltahir, Cairo Peace Summit ends without Gaza breakthrough, *Reuters*, 2023.10.22.
 - * Alex Marquardt, US seeks delay of Israeli ground incursion for more time for hostage talks, *CNN*, 2023.10.22.
 - * Aljazeera, Netanyahu says war entering ‘second stage’ as Israeli troops

push into Gaza, 2023.10.29.

- * AP, "China and Russia plan to work together for a two-state solution for Israel and the Palestinians", *AP*, 2023.10.20.
- * Collin P. Clarke, Iran and the 'Axis of Resistance' Vastly Improved Hamas's Operational Capabilities,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3.10.27.
- * CSIS, Press Briefing: Latest Insights on Israel-Hamas War, 2023.10.13.
- * سيد ابراهيم رئيسي@raisi_com, 2023.10.29.
(https://twitter.com/raisi_com/status/1718461912168489156).
- * Edith M. Lederer, UN Security Council fails again to address Israel-Hamas war, rejecting US and Russian resolutions, *AP*, 2023.10.26.
- * Edward Wong, Eric Schmitt, Michael D. Shear and Ronen Bergman, U.S. Advises Israel to Delay Gaza Invasion, Officials Say, 2023.10.22.
- * Emanuel Fabian, "Gallant sets out 3 phases of war; says after Hamas vanquished, Israel will seek new 'security regime' in Gaza," *The Times of Israel*, 2023.10.20.
- * Euronews, "Street marchers back both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n European cities", *Euronews*, 2023.10.14.
- * Farnaz Fassihi, After Years of Vowing to Destroy Israel, Iran Faces a Dilemma, *The New York Times*, 2023.11.1.
- * Farnaz Fassihi and Ronen Bergman, Hamas Attack on Israel Brings New Scrutiny of Group's Ties to Iran, 2023.10.14.
- * Fritz Farrow, Biden calls for 'pause' in Israel-Gaza conflict to get hostages out, 2023.11.2.
- * Fuad Shahbazov, Reimagining Geopolitics: How the IMEC Corridor Aims to Reshape Global Trade Dynamic, Gulf International Forum, 2023.10.19.
- * Isabel Debre, Deith M. Lederer and Wafaa Shurafa, Palestinians flee northern Gaza after Israel orders 1 million to evacuate as ground attack looms, 2023.10.14.
- * Jack Jeffery and Samy Magdy, Why Egypt and other Arab countries are unwilling to take in Palestinian refugees from Gaza, *AP*, 2023,10.19.
- * Jim Zanotti, et. al., Israel and Hamas October 2023 Conflict: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R47754)*,

2023.10.13.

- * Joby Warrick, Ellen Nakashima, Shane Harris and Souad Mekhennet, Hamas received weapons and training from Iran, officials say, *The Washington Post*, 2023.10.9.
- * Julia Frankel, These numbers show the staggering toll of the Israel–Hamas war, *AP*, 2023.11.6.
- * Laure Stephan, Israel–Hamas war: Cairo summit calls for humanitarian aid amid acute divisions between Europeans and Arabs, *Le Monde*, 2023.10.23.
- * Leily Nikounazar, Iran’s Supreme Leader Issues Tehran’s Latest Denial of Involvement in Israel Attacks, *The New York Times*, 2023.10.10.
- * Lili Pike, “The Israel–Hamas War Is Testing China’s Diplomatic Strategy”, *Foreign Policy*, October 10, 2023.
- * Lisa Beyer, “Your Guide to Understanding the Roots of the Israel–Hamas War,” *Bloomberg*, 2023.10.14.
- * Maria Abi–Habib and Ben Hubbard, Hezbollah Hesitates as Israel Strikes Gaza, 2023. 10.31.
- * Mat Nashed and Justin Salhani, Lebanon fears regional war as Hezbollah–Israel fighting intensifies, 2023.10.30.
- * Michael Crowley and Alan Rappeport, U.S. and Qatar Deny Iran Access to \$6 Billion From Prisoner Deal, *The New York Times*, 2023.10.12.
- * Najib Jobain, Joseph Krauss and Samy Magdy, Egypt’s border crossing opens to let a trickle of desperately needed aid into besieged Gaza, *AP*, 2023.10.19.
- * Nectar Gan, “China wants to be a peace broker in the Middle. How has it responded to the Israel–Gaza war? ”, *CNN*, 2023.10.11.
- * Patrick Kingsley, Ronen Bergman and Hiba Yazbek, Israeli Forces Step Up Bombardment and Make Another Incursion Into Gaza, *the New York Times*, 2023.10.27.
- * Patrick Kingsley, Netanyahu Rejects Calls for a Cease–fire — and for His Resignation, *The New York Times*, 2023.10.30.
- * Peter Baker, Biden Warns Israel Not to Occupy Gaza, *The New York Times*, 2023.10.15.
- * Peter Baker and Farnaz Fassihi, Fearing Escalation, Biden Seeks to Deter Iran and Hezbollah, *The New York Times*, 2023,10.15.

- * Ted Regencia, Lyndal Rowlands, Mersiha Gadzo and Usaid Siddiqui, Israel– Hamas war live: Rafah opens from Gaza for limited evacuations, *AlJazeera*, 2023.11.1.
- * The New York Times, Full Video and Transcript: Trump’s Speech Recognizing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The New York Times*, 2017.12.6.
- *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Meeting for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2023.9.9.
- * The White House, FACT SHEET: World Leaders Launch a Landmark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2023.9.9.
- * The White House, Statement from President Joe Biden Condemning Terrorist Attacks in Israel, 2023.10.7.
- *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Terrorist Attacks In Israel, 2023.10.7.
- *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on Israel, 2023.10.9.
- *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2023.10.10.
- * The White House, Readout of President Biden’s Call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of Israel, 2023.10.29.
- * Tucker Reals and Charlie D’agata, Why did Hamas attack Israel, and why now?, *CBS NEWS*, 2023.10.25.
-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Calling for Immediate, Sustained Humanitarian Truce Leading to Cessation of Hostilities between Israel, Hamas, *TENTH EMERGENCY SPECIAL SESSION, 40TH & 41ST MEETINGS (AM & PM), GA/12548*, 2023.10.27.
- * UN News(<https://news.un.org/en/>)
- * UNRWA, 2014 GAZA CONFLICT(<https://www.unrwa.org/2014-gaza-conflict>).
- *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Blinken’s Travel to Israel, Jordan, Qatar, Bahrain, Saudi Arabia,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Egypt, 2023.10.12.
-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ollowing Terrorist Attack on Israel, Treasury Sanctions Hamas Operatives and Financial Facilitators, 2023.10.18.
-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Sanctions Actors Supporting Iran’s Missile and UAV Programs, 2023.10.18.

- * Vivian Yee and Matina Stevis-Gridneff. Peace Summit in Egypt Shows a Shift in Rhetoric but no Consensus, *The New York times*, 2023.10.21.
- * Vivian Yee, The fate of many Gazans lies with the Rafah crossing, and Egypt, *The New York Times*, 2023.10.31.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304호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 - 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 -	2023.11.7.	구세주
제303호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2023.11.2.	이덕란
제302호	포털뉴스의 평가와 영향: 실증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2023.10.27.	최진응
제301호	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	2023.10.19.	김광현
제300호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조건과 효과에 대한 검토	2023.8.10.	고원 정치발전 제도개선 T/F
제299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3.8.9.	유재국
제298호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23.7.28.	이예지 황성필
제297호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문자시스템 비교	2023.7.24.	배재현
제296호	선출직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2023.7.21.	하혜영
제295호	만화·웹툰 산업 저작권자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2023.6.5.	박제웅
제294호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 새로운 대안 및 전략에 대한 모색	2023.5.31.	고원 정치발전 제도개선 T/F
제293호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정치발전제도개선 TF)	2023.5.25.	김선화 오창룡
제292호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2023.5.22.	하혜영
제291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2023.5.10.	이덕란 유지연
제290호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2023.5.10.	허민숙
제289호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 편의점 유리벽의 '불투명 시트지' 논란을 중심으로 -	2023.5.8.	문심명
제288호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2023.5.2.	유영국
제287호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	2023.4.26.	김형진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86호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3.3.31.	박소현
제285호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 검토	2023.3.30.	김광현
제284호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2023.2.24.	허민숙
제283호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	2023.1.25.	김도희
제282호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2023.1.16.	장경석 박인숙
제281호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현황과 향후 과제	2022.12.30.	배성희
제280호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2022.12.30.	황인욱
제279호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② -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2022.12.30.	김도희
제278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정책 개선 방안	2022.12.30.	이동영
제277호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	2022.12.30.	심성은
제276호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2.12.29.	경선주
제275호	국회 의사절차 개혁과 입법기간의 변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 비교	2022.12.29.	전진영
제274호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과제 - 에너지 정책 방향 검토와 에너지 산업 전망을 중심으로	2022.12.29.	이승만
제273호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2022.12.29.	박소현
제272호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2022.12.29.	이소영
제271호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2022.12.28.	유재국
제270호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2022.12.27.	김형진
제269호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2.12.20.	임준배



NARS 현안분석 제305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배경, 전망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614-14
ISSN 2586-565X

